

엠테크무역상사

“경쟁력 있는 라벨인쇄기 공급에 최선”



물류 유통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후한 인심을 무기로 고객을 유치하던 재래시장의 기능은 대형 할인매장에 떠밀려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이다. 대형 유통매장의 등장은 다리품을 팔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다양한 물품을 비교,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와 물류비용 절감을 원하는 공급업체들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특정 장소만 찾으면 원하는 제품을 비교해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대형 유통매장의 등장은 여간 반길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대형유통매장의 등장은 소비자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비록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형할인 매장을 찾는 고객의 선호도를 좇아 할인매장 입점을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하며, 어렵사리 입점한 할인 매장에서조차 나란히 진열된 타사의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최근 엠테크무역상사(대표 조영민)는 좀 더 특별한 라벨기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조영민 대표의 무역실무 노하우는 많은 노력에 의해서만 들어졌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2년 과정인 한미전산원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땀다. 또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에 매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대문 상가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뒤 창익기계에 입사했다. 창익기계에 입사한 뒤에도 조 대표의 배움의 길은 끝이 없었다. 무역실무를 위해 영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조 대표는 방송통신대 영문학과에 입학해 영어공부도 병행했으며 해외무역업무의 비중도 그의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조 대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에 입각, 무엇이든 먼저 해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지금까지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엠테크무역상사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고객 입맛에 맞는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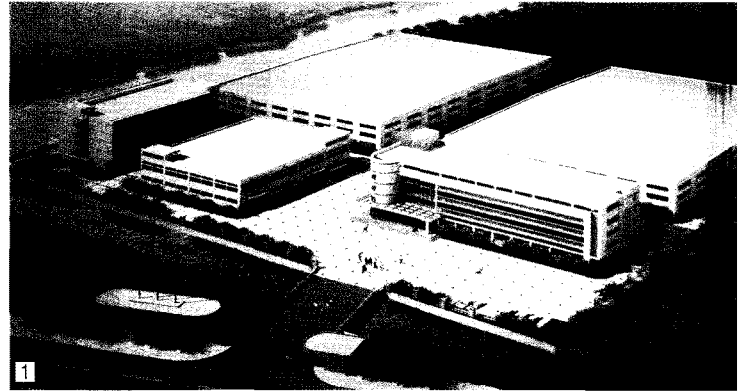
엠테크무역상사는 스티커라벨인쇄기, 플렉소라벨인쇄기, 디지털인쇄기 및 관련 장비와 부품들을 수출입하는 회사다. 라벨인쇄기 전문 판매 설립목적을 위해 엠테크무역상사 조영민 대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라벨인쇄기제작사에서 영업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3년 엠테크무역상사를 설립했다.

조 대표는 세계글로벌 네트워크에 발맞추어 라벨인쇄산업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읽고 소비자들에게 최신정보를 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각화와 고급품질, 안전성, 편의성, 내구성, 안정된 제품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이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라벨인쇄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 설비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엠테크무역상사는 고객 입맛에 맞게 적당한 설비가격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고기를 트레이드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중고 소비층을 위해 국내외 전문 웹 사이트를 통해 멀티 영업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ManiA-300과 330시리즈

2003년 창업한 이래 스티커 라벨인쇄기와 주변기기 및 기타재료 무역에 주력해 온 엠테크무역상사는 기존 샤프트축 방식이 아닌, 개별식 인쇄부 구동방식의 인쇄기로 고품질 인쇄물을 공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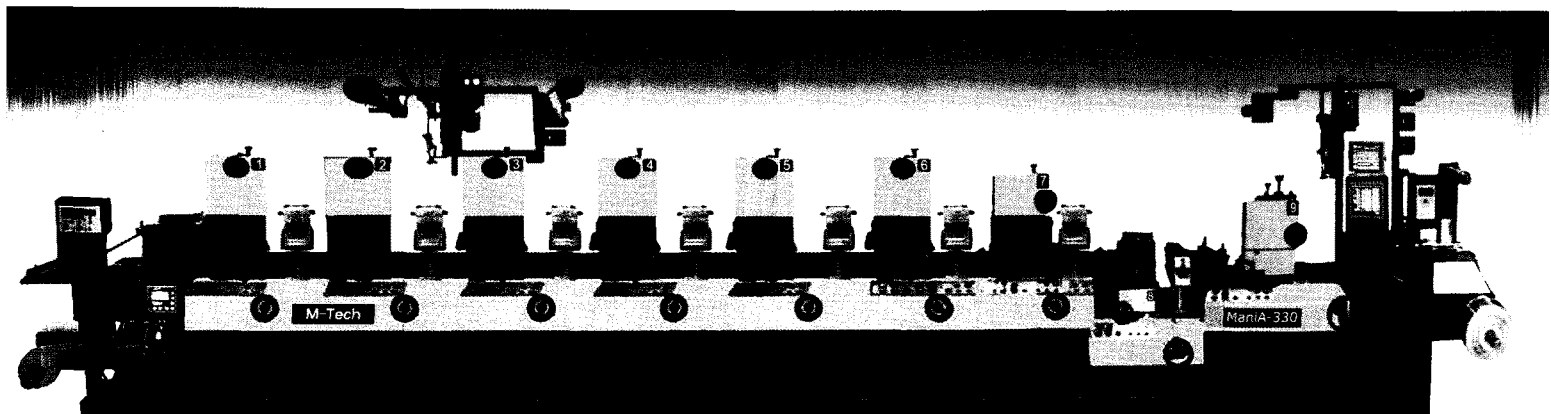
특히 ManiA-300은 원단 좌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웹가이드(EPC)와 텐션컨트롤러 및 파우다클러치(원단기), 파우다 브레이크(리와인더기)가 장착돼 있어 오퍼레이터의 편리성과 뛰어난 인쇄품질 및 생산성에 중점을 둔 우수한 기계다. 이처럼 단시간 내에 고효율 인쇄를 하게 된 것은 스크린 터치식 조작패널에서 개별식 인쇄부에 원하는 유닛을 터치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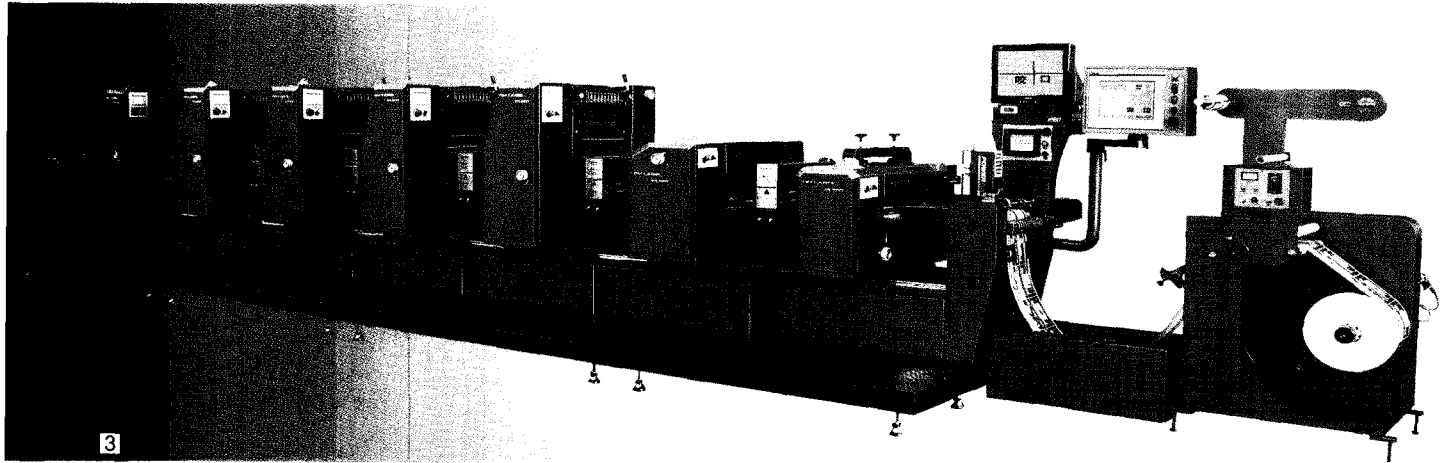


설정해 좌/우 핀트를 2.5mm씩 정밀조절과 수동식 각도조절 장치시스템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개별 서브모터식 인쇄부에 자동 오일순환장치가 부착돼 기존 샤프트 방식에서 몇 달에 한번 커버를 열고 오일을 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작업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기계수명 단축의 문제점을 완벽히 해소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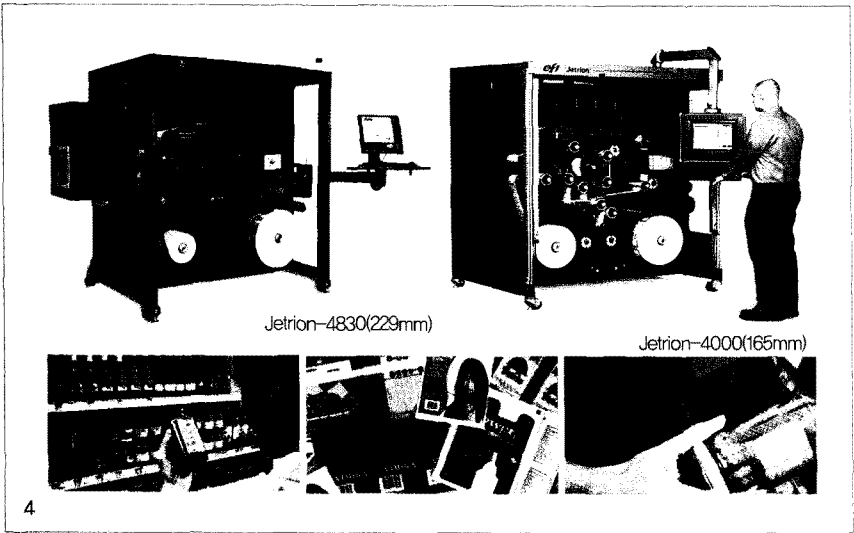
또한 ManiA-300과 330은 컴퓨터그래픽으로 설계 계산된 잉크전달 방식과 고품질 잉크롤러를 사용함으로써 고스트 현상을 최소화 했고, 편리한 자동잉크세척방식을 채택해 생산성 극대화와 고품질 인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개별식 서브모터식 인쇄부는 원단이 메인 하부롤러에 닿지 않게 설계돼 원단 덜리버리시에 오목현상이 없고, 수명연장으로 인한 소모부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옵션으로는 인쇄부에 U.V 바니쉬코팅, 배면인쇄, 로터리 마그네틱 실린더를 장착할 수 있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소비자만족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인쇄면적은 300×315mm, 점프식으로 4도 인쇄시에는 원단 피딩길이를 360mm까지 인쇄가 가능하며 인쇄부 자체에 자동 리와인딩부가 있어 피딩길이를 최대로 인쇄시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중국 웨이강(Waigang) 공장 전경
 2. 인쇄 품질 및 생산성에 중점을 둔 ManiA-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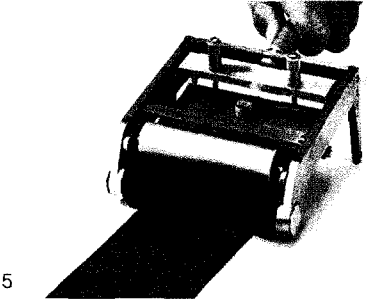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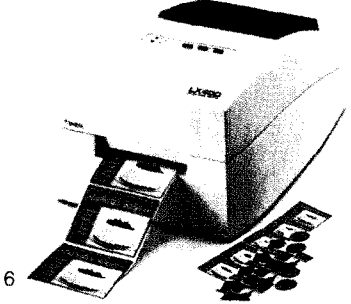
Jetrion-4830(229mm)

Jetrion-4000(165mm)

4



5



6

블랭킷 교환 없이 백만장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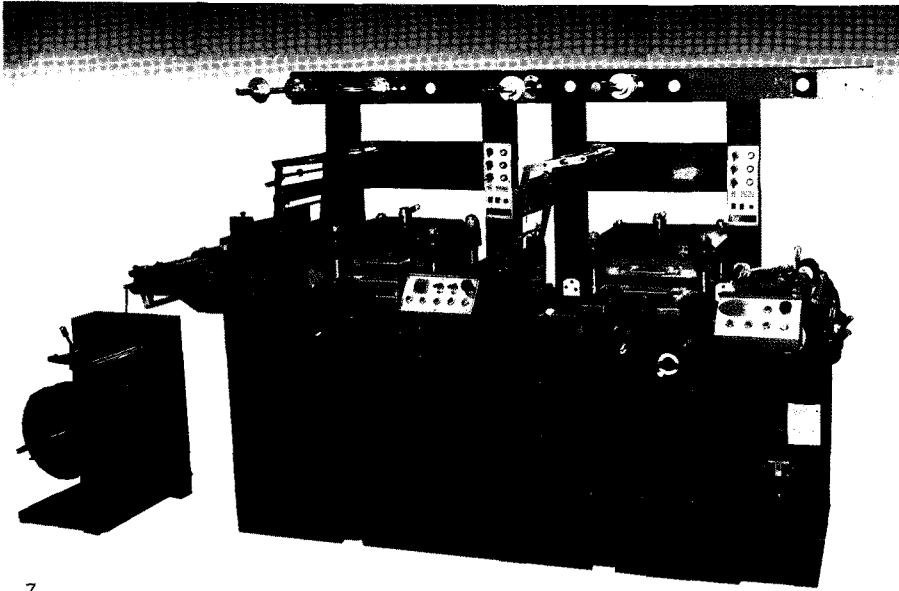
간결식 PS판 UV 로터리 오프셋라벨 인쇄기 'ZX-320'은 한 번의 블랭킷 장착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블랭킷 교환 없이 백만 장까지 인쇄를 할 수 있어서 기존 오프셋 기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댐핑 시스템(Damping System)이다. 물 텐션이 일정하며 특히 물오름 양이 물통 롤러와 옴김 롤러 접촉압과 습수 롤러의 표면축조에 의해 정해져 물오름 양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축임 물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어서 인쇄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옵션으로 잉킹(Inking) 리모트콘트롤 방식을 채용, 한 번 데이터 저장으로 다음에 별도의 추가적인 동일한 데이터 입력에 의한 잉크조절 없이 곧바로 인쇄가 가능하다. 100mm의 인쇄물을 작업한 후 다음 인쇄물의 크기가 200mm일 경우 컨트롤 조작 판넬에서 바로 실행버튼을 눌러 작업할 수 있다. 300mm 인쇄물을 인쇄할 경우 분당 최고속도는 60m다.

인쇄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Jetrion 4000/4830

제트리온 4000/4830은 인쇄한 다음, 별도 코팅을 하지 않고 바로 납품할 수 있는 UV잉크시스템이다. 특히 맞춤 가변형, 작업의 간편화, 주문형 인쇄 등으로 고객의 요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고 기존 로터리 인쇄기의 활용도를 같이 높이는 인쇄기이다. 사진인화에 가까운 품질을 보이며 수많은 토너베이스 방식의 클릭차지와 달리 오로지 잉크만 구입하면 된다. 최대 분당 30.3미터는 단기작업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인쇄기이다. 매우 정교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프린트 헤드 제어, 작업관리, 라벨디자인, 가변데이터 배치 및 제어, 실시간 인쇄 진단, 잉크사용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표준스티커 원단에 인쇄되며 특히 스크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원단 소모가 거의 없으며 도당 3.5리터 및 리필 방식이며 인쇄 품질에 대해 20개월을 보증한다.

제트리온 4000UV 잉크젯 시스템과 EFI에서 출시되는 잉크는 고객들의 요구와 충족을 위해 인쇄시장에 발맞출 수 있



3. ZX-320 고속 PS판 UV 오프셋 로터리 라벨인쇄기
(분당 : 45-60미터 320mm x 350mm)
4. 인쇄한 다음 별도 코팅을 하지 않고 바로 탑품할 수 있는 UV잉크 시스템을 갖춘 Jetrion 4000/4830 라벨인쇄기
5. 플렉소롤러 색상 테스트기
6. 소형 컬러 라벨인쇄기
7. 자동 금박도무송기
8. 조영민대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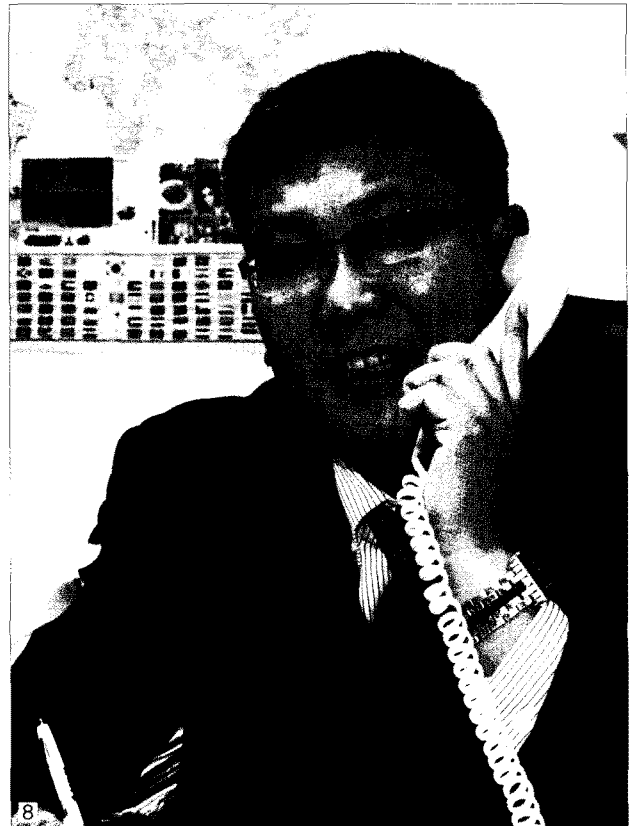
는 솔루션이다. EFI에서 출시된 Jetrion 4000은 풀 컬러 디지털 스티커 라벨기로는 최초로 50,000라벨 이상을 가능케 한 경제적인 기계이다. 속도는 분당 15.2~30.5미터를 출력하며 grayscale(표준반사판)까지 결합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것은 생산과 이미지, 높은 품질을 필요로 하는 이전 라벨기계의 요구를 완벽히 갖춘 것이다. 또한 Jetrion 4000은 2차 라벨작업, 산업라벨 혹은 포장에도 인쇄가 가능하다.

무한 경쟁시대 라벨산업의 가치

국가간 관세의 장벽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조업체의 경쟁상대는 제조국가가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조영민 대표는 “다른 국내외 제품과 비교해 품질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제품이 해외 판매 경쟁에서 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납품하는 모든 라벨제품이 해외시장이든 국내시장이든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제품의 우수성을 말했다. 현재 엠테크무역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벨기는 중국(Waigang, HAOTIAN) 라벨기와 미국(EFI) 라벨기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고제품을 매입해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다. 종류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평압식 금박 겸 싱글 톱슨기, 로터리 톱슨 및 슬리터기, 초음파용착 직물라벨 슬리터기, 레이저 세라믹 아니록스 롤 등 다양한 기능의 라벨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차 소량 다품종화 되어 가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엠테크무역상사가 지닌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도 생산성 높은 시설도 아닌



8

‘젊음’과 ‘도전’이다. 회사에서 사실상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 대표는 현장에서 제품 조립과 함께 신제품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고객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